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일반매칭8팀

1주차	일시	5월 15일 14 : 00 교수님 연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2051052)	O
		노현준(2591001)	O
		신지은(2413021)	O
		정예원(2311195)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이방인	진도페이지: 프리뷰 및 오리엔테이션
토론 내용	활동 사진 추가 [좌측부터 ○○○, ○○○, ○○○ ...] 박진서 :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이름만 알았지 많이 읽지는 않아서 기대가 되었다.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보고 차별에 대해 다룬 책일 것 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예상한 내용과 일치할까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신지은 : 팀원들과 교수님을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난 모임이었다. 모임시간동안 독서모임을 하게 된 동기와 ‘이방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평소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고 이 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독서모임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도서 ‘이방인’은 사실 내가 원해서 선택이 된 도서가 아니다. 3가지 후보 중 이방인 3표를 받아 선택이 되었는데 투표하지 않은 하나의 표가 바로 나였다.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한국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있었던 한국문학 소설이 선택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참에 고전소설도 읽어보는 좋은 기회가 된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예원 : 기존에 투표를 통해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첫 모임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있을 남은 모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서 토의를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 이방인을 다음 모임까지 1부를 읽어 오기로 했고, 그 다음 모임까지는 2부를 읽고 토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노현준 : 50년대 프랑스 실존주의와 관련하여 작품을 탐구하였다. 작가인 카뮈의 사상은 실존주의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인 ‘부조리’가 어떻게 작품에서 표현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작가의 다른 책인 <<시지프 신화>>와 연결하여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지만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조리가 책의 내용인 재판과 관련하여 왜 책의 제목이 이방인인지 설명하였다.		

2주차	일시	5월 22일 13 : 30 온라인 웹엑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2051052)	O
		노현준(2591001)	O
		신지은(2413021)	O
		정예원(2311195)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이방인	진도페이지: 1p. ~ 78p.
	토론 내용	활동 사진 추가 [좌측부터 ○○○, ○○○, ○○○ ...] 박진서: 1부는 뫼르소가 살인을 하는 장면까지 나타냈다. 뫼르소라는 인물은 일단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죽음의 개입이 없고, 사회적인 규범에서 많이 벗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조원들, 교수님과 토론을 하다보니 뫼르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고 솔직한 인물이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글에 서술된 내용들을 다시 보니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한 건 사회적 규범에 맞춘 나의 의견이었고, 인간상을 봤을 때는 솔직한 인물이 맞는 것 같다고 느꼈다. 살인을 한 이유가 태양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2부에 내용이 풀려질 것을 기대한다. 신지은 : 이번주차는 이방인 1부까지 읽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뫼르소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의 세계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특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장례식 당일 햇빛이나 담배에 더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 장면을 통해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감정 표현이 과연 진짜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만들어낸 하나의 연극 같은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뫼르소의 행동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정예원 : 1부에서 주인공 '뫼르소'는 초반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는 그 바로 다음날에도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그는 이웃인 레이몽의 여자친구 문제에 말려들며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1부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았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놀라기도 했으며, 주인공인 '뫼르소'에 대해 조금도 매력을 느끼지 못해 이 작품이 대체 어떤 작품인지 읽기 전보다 더 궁금해졌다. 1부가 그의 살인을 마지막으로 끝나, 토론에서 주로 나온 얘기는 주인공인 '뫼르소'가 어떤 인물인가? 였다. 조원 중 한 사람은 '뫼르소'가 가짜 슬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인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고 했고 대부분 나머지의 조원들은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역시 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쪽에 가까웠는데, 처음엔 그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하지만 그의 1인칭 시점으로 작품이 전개되는 특성상 그의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각 묘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감각은 남들보다 뛰어나게 느끼는 편이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그가 조금 지쳐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모든 일에 귀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남은 부분은 2부까지 읽어 봐야 더 알겠지만 1부를 읽고 진행한 토론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노현준 : 책의 주인공 뫼르소를 1부의 행적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뫼르소의 심리는 작중 내부와 외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런 심리에 대하여 여러 평가를 내렸는데 서양 철학 전통에 입각하여 매우 감각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활동하는 뫼르소를 감정적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감정에 솔직한 사람 등으로 평가를 내렸다.	

3주차	일시	5월 29일 14 : 00 교수님 연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2051052)	O
		노현준(2591001)	O
		신지은(2413021)	X (건강 문제)
		정예원(2311195)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이방인	진도페이지: 79p. ~ 148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박진서, 정예원, 노현준 ...] 박진서: 2부는 뫼르소의 재판 과정이었다. 뫼르소는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1부에서 뫼르소가 보인 행동들에 대한 심리 묘사나 뫼르소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기준에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사이코패스적인 면모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뫼르소처럼 생각하고 살아본 경험을 듣고 나서는 내 생각보다는 정직하고 그저 거짓말을 하기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은 뫼르소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사회적 규범을 부조리라 생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뫼르소, 제목을 이방인으로 지은 이유가 느껴졌다. 정예원 : 이 책 속에서 주인공 ‘뫼르소’가 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쪽에 가까웠다. 단순히 사람들이 이 인물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불리는 것이 맞을까? 사람들이 규정해둔 일종의 보편성을 수행하고자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는 뫼르소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이 책을 읽는 데에 가장 중점이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 토론에서 두드러졌던 주요 주제는 ‘나는 뫼르소보다 나은 인간인가?’ 였다. 이 질문을 두고 독서 클럽의 조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뫼르소’의 솔직함에 집중하였다. 뫼르소가 사람을 살해한 것을 제외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뫼르소보다 나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주인공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뫼르소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사회성을 겸비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타인을 배려하는 만큼 나도 타인에게 배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범죄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물론 작품 속에서 뫼르소는 타인에게도 배려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역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뫼르소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오로지 사회에서 그만 ‘이방인’을 담당했을 때 성립 가능하다. 만일 모든 사람이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베르 카뮈가 당시에 살았던 시대상, 그 시대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상실과 회의감. 이 작품은 현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당시 쓰여졌던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작품이라기보다, 당시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을 보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노현준 : 부의 재판에 관련하여 프랑스의 재판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조리에 대하여 논했다. 뫼르소가 죽음을 앞두면서 대하는 그의 태도와 사형을 당할 위기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태도는 카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조리를 대하는 태도이다. 뫼르소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 자신을 표출하려 한다. 그에 대한 필연적 결과는 그 아무리 위험하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간극이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이며 주인공 뫼르소는 그 부조리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4주차	일시	6월 5일 14 : 00 온라인 웹엑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진서(2051052)	O
		노현준(2591001)	O
		신지은(2413021)	O
		정예원(2311195)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이방인	진도페이지: 해설집 포함 리뷰
	토론 내용	[좌측부터 ○○○, ○○○, ○○○ ...] 박진서 : 작품 해설에서 뫼르소는 연극처럼 짜여진 사회적인 규범 속에서 나타나는 부조리에 대항하는 인물이라고 표현이 된다. 뫼르소의 성향이 죽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고 솔직한 인물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뫼르소는 그저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로 느껴졌다. 소신을 지킨다는 거창한 말이 아니고 말이다. 한편으로는 뫼르소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궁금해졌고, 나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경험해보고 싶었다. 신지은 : . 이방인을 해설부분까지 다 읽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 책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결말에 다다르면서 뫼르소라는 인물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히 감정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평온함을 느끼는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처음에 이 책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읽기 전까지는 큰 기대가 없었지만, 읽고 난 후에는 삶에 대한 나의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예원 : 이번 주차에서는 민음사 출판사의 <이방인> 도서의 뒤쪽에 있는 서평, 해설을 보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조원들이 초반에는 주인공 ‘뫼르소’라는 인물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서평까지 읽고 난 뒤에는 주인공인 ‘뫼르소’가 누구보다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감상을 발표했다. 특히 서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뫼르소의 재판장면에서 유일하게 연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했던 사람은 뫼르소 한 명이었다는 점이였다. 한 명의 학생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이 작품이 왜 가치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노현준: <<이방인>>은 구원 서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기독교적 관념에 대치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의미로만 평가가 가능할 뿐 행위에 대한 외부적 평가는 배제한다. 주인공 뫼르소가 사형을 피할수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생각한 그대로 표현한 것은 그런 이유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남에게도 솔직한 것, 솔직한 행위에서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현대에도 <<이방인>>이 가지는 의미이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진서 (2051052)	사회적인 규범과 인식에서 벗어난 존재 이방인 뫼르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재밌는 책이었다. 난 그저 뫼르소가 이상하고 사이코패스적 면모만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흥미로웠다. 다른 문학상 수상 도서도 읽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2	노현준 (2591001)	"이방인은 읽기 어려운 책이다. 기존과 다른 형태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점이 이책의 매력이었다. 이반 독서 활동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조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이었다. 특히 공통적으로 책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예상했던 바 이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들어보니 흥미로웠다. 주인공의 심리를 주요하게 탐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문학적 이해에 틀과 다른 방식으로의 이해를 경험한 점이 가치 있었다."
	3	신지은 (2413021)	독서모임이라는 것을 처음 가져보았는데 여러 일정과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 급하게 하느라 개인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된거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책을 충분히 곱씹고 느끼기보다는 과제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고, 특히 3주차에는 감기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래도 올해 독서 목표였던 세계문학전집 시리즈 책 읽기를 이번 독서모임을 통해 달성하게 되어서 뿌듯하다. '이방인'은 고전 중에서도 비교적 짧고 문장이 간결해서 세계문학 입문 도서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읽기 쉽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와 철학이 깊이 있어 오랜 여운을 남겼다. 혼자 읽었다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생각이나 해석을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넓혀갈 수 있었던 점도 이번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해서,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독서모임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관점을 나누는 과정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또 다른 배움의 경험이었다.
	4	정예원 (2311195)	처음에는 뫼르소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토론을 통해 뫼르소가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한 명의 학생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는 이 작품이 왜 가치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성명 (학번)	